

<보이스피싱범의 담화 전략 분석: 정부기관 사칭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장선미 (호서대학교)

보이스피싱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늘 희화화되어 개그의 소재로도 쓰였던 보이스피싱은 사실 논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서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연구결과들이 그리 효과가 없는 것인지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행위라서 범행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관장하는 수사기관이나 법 집행 기관과 연관이 있지 사회언어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언뜻 생각이 들지만 논문에서 언급했듯이 대화로 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싱은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고 연구 결과가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연구는 보이스피싱 대화의 담화구조/구성을 파악하고 보이스피싱 대화에서 사용되는 전략등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 정도도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가 많지 않았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어떻게 보이스피싱범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혹되게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대화분석이나 맥락이 고려된 담화분석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논문 말미에도 언급되었듯이 향후 심층 연구 주제로 삼아 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